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 성경: 마가복음 10장13-16절

Tag:

13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막10:13-16)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

당시 어린이들은 그리 대접받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지나친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이 많다.

지나친 교육은 그래도 방치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보다는 제대로 된 교양과 훈계가 그 어린이를 위해서 더 낫다. 지나친 교육을 그 어린이가 소화해 내지 못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어린이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하려면, 그게 가능하도록 가정의 분위기가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setting 되어야 한다. 즉 발이 옥토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단순히 규율이 엄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적 가치관, 사랑하는 분위기, 배려하는 분위기, 기도하고 찬송하는 분위기, 예배하는 분위기,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어린이에게 좋은 것은 없다. 문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을 문을 열어서 집안으로 모셔 들이는 것은 곧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이에게 부모가 직접 찬송가를 들려주고 따라 부르게 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따라 읽게 하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교양과 훈육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가정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성경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천군천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성경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종류의 교육이 가능해진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종류의 훈육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다. 이보다 더 훌륭한 교육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아이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 아이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 성령께서 그 아이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13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얼마나 귀한 부모들인가?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부모가 못할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무시하였다.

14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들이 무시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지나친 교육도 아주 싫어하신다.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보호이다.

-그런데 부모는 단순히 그 아이를 감싸고 보호하는데 그친다면 그 보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호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다.

-사람에게는 첫 번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무엇을 먹여줄 것인가,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때 ‘이런 자’의 의미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여 어떤 더러운 것으로도 더럽혀지지 않은 자’를 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마귀의 생각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순전하고 거룩한 자’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이고, 그 아이에게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자가 된다.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

-더럽혀지지 않는 순전한 영혼, 순전한 마음, 순전한 몸, 순전한 열정, 순전한 지식, 순전한 생각, 순전한 정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

-받든다는 것은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

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이다.

-어린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가르치라.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6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 아이를 마음껏 축복하라. 아이의 천사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보고하여 결례를 받는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복이 아이에게 임하게 된다.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 좋은 구절을 몇가지 소개하겠다.

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 10:42)

비록 부모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아 아이에게 선행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교우들에게)

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멧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마18:6)

누구든지 이 아이를 죄에 빠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10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마18:10)

어린이라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이다. 저희 천사가 하나님께 항상 보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거나, 이 어린이를 업신여길 기회가 가장 많거나 가장 쉬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그 아이의 부모들이다.

이웃집 또래가 아이를 업신여킨다고 아이가 실족하지 않는다. 아이가 화를 낼 뿐이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업신여기면 아이는 100% 실족한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의 훈계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평상시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의 교양으로 양육해야 훈계가 가능해진다.

언제 아이가 치명적으로 실족하는가? 엄마 아빠가 다들때이다. 만약 큰소리치면서 다툰다면 아이의 심령은 쪼그라들고,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아이의 눈치가 늘어난다.

14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18:14)

???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

어린이가 자신의 삶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 아이의 가능성이 가장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물리적 환경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이란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지나치게 부요하게 하는 것도 지나치게 가난하게 갖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환경을 대처하는 부모의 방식이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 살더라도 부모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 된다. 불편이란 적응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며, 불편은 불편일 뿐 결코 불행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이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사교육과 공교육에 관한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는 결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대단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지금도 여전히 교육산업은 놀라우리만큼 발전하고 있으며, 문제들은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해가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는 우리나라 초등과 중등 수준의 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서 이수한 자들에게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루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성장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감당했으면 하는 기도제목이 있다.

<찬양예배>

제목 : 민수기 성경공부 성경: 민수기 7장1-23,84-89절

Tag: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 제도

-제사의 기본적 정신은 대속(속죄)임.

제물의 종류

동물	숫소-암소-숫양-암양-숫염소-암염소, 산비둘기2-집비둘기 새끼2.
식물	고운가루(밀가루), 기름을 섞은 무교병or 무교전병, 유교병, 번철;화덕에 구운 전병
액체	포도주, 기름, 피
고체	유향

제사의 방식에 따라

화제	번제	동물의 각을 떼서 번제단 위에 모두 불살라 드리는 예물, 잡는 장소;희막문, 머리에 안수함(기쁘게 받으시도록),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뜸, 각-머리-기름을 불사름,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서 전부를 불살라 드림.
	소제	곡식을 곱게 빻아서 한옹큼을 제단 위에 올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전제)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드리는 예물,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칩.
	전제	소제 위에 끼얹어 드리는 예물
요제	혼든 가슴. 동물의 가슴을 제단 앞에서 혼듬.	
거제	든 뒷다리. 동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가슴높이만큼 들어올림.	

제사의 목적에 따라

화목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
감사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	죄를 뉘우치고 속죄를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속건제	-부지중에 범한 성물에 대한 죄나 계명을 범한 죄를 속죄함(숫양으로 +1/5을 더하여 배상) 하나님 앞에 범한 잘못. -손해배상을 위해 드리는 제사(백성간의 손해배상);본래의 물건+1/5을 더하여 배상. 그리고 하나님께는 속건제를 드리라.
서원제, 자원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예물. 자원제는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감동이 있어 드리는 예물.

제물의 조건과 방법

- 흠이 없을 것.
- 번제이면 숫컷으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뜸, 제단위에 나무를 벌러 놓고 그 위에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얹어 불사름.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 제단위에 불사름.
- 소는 회막 문 앞에서 잡을 것
- 양이나 염소는 제단북쪽에서 잡을 것
- 비둘기는 제단에서 머리를 비틀 것.(피는 제단 곁에 흘림)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살짝 찢을 것.
- 비둘기의 모래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질 것.
- 무교병은 기름을 섞어만든 떡, 무교전병은 기름을 바른 얇은 과자.
- 화목제이면 수컷이나 암컷으로 흠이 없어야 함. 회막 앞에서 잡음.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림.
- 화목제는 모든 기름과 두콩팥을 번제로 사를 것. (나머지는 먹음)

속죄 제사 방법

- 제사장의 속죄제물(회중의 속죄제물);수송아지-그 피를 회막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 휘장앞에 일곱번 뿌림. 향단 뿔들에 바름.(회중을 위한 속죄는 번제단 뿔들에 바름) 나머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음. 기름과 콩팥은 제단에서 불사름. 나머지 전부(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는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름.(회중을 위한 속죄제물은 진영 밖으로 가져다 불사름.) *회막 안에 들어간 속죄제물은 먹지 못함.
- 축장의 속죄제;숫염소. 피를 번제단 뿔들에 바름.
- 평민의 속죄제;암염소.(어린암양) 피를 번제단 뿔들에 바름.(암염소=어린암양)>=산비둘기 두마리=집비둘기 새끼 두마리>=고운 가루 1/10에바+no기름, no유향 -한응큼을 불사름)
- 속죄제물로서의 비둘기의 제사 방법;<1속죄제물+2번제물> 목을 비들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림.

-제물의 분배

-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음.
- .소제물은 아론의 모든 자손들에게 균등분배.
- .화목제의 소제중 기념예물을 제외한 소제와 거제는 제사장의 몫. 나머지는 제주의 몫.
- .감사의 화목제물 중 고기는 그날 다 먹고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 (다만 서원이나 자원제는 삼일날 아침에는불사를 것.)
- .고기는 정결한 자만 먹을 것.
- .화목제 혼든 가슴은 아론의 자손들의 것.
- .화목제 든 뒷다리는 제사 집도사제의 소득.
- 제물의 혼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아론과 그의 자손의 소득.

1.번제(동물)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모두 불살라 드리는 예물, 장소; 회막문, 머리에 안수;기쁘게 받으시도록;피를 제단 사방에 뿌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뜸;각-머리-기름을 불사름;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서 전부를 불랄라 드림.(화제)

2.소제(식물) 곡식을 곱게 빻아서 한응쿰을 제단 위에 올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드리는 예물(화제);나머지는 제사장의 몫.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칠 것.

3.전제(포도주) 소제 위에 끼얹어 드리는 예물

-제사의 목적에 따라

3.화목제;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4.속죄제;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5.속건제;(속건제의 가격은 제사장이 정함.)

-부지중에 범한 성물에 대한 죄나 계명을 범한 죄를 속죄함(숫양으로 +1/5을 더하여 배상) 하나님 앞에 범한 잘못.

-손해배상을 위해 드리는 제사(백성간의 손해배상);본래의 물건+1/5을 더하여 배상. 그리고 하나님께는 속건제를 드리라.

6.서원제, 자원제

제사의 방식에 따라

-번제(화제); 제단에서 불살라 드림

-거제;제단 앞에서 가슴 높이만큼 들어 올려서 드림

-요제;제물의 가슴을 제단 앞에서 흔들어서 드림

-행사나 절기에 따라

-대속죄일;

-대제사장의 위임식;

제물의 조건과 방법

-흠이 없을 것.

-번제이면 숫컷으로. 각을 뜨고, 제단위에 나무를 벌려 놓고 머리와 각과

-소는 회막 문 앞에서 잡을 것

-양이나 염소는 제단북쪽에서 잡을 것

-비둘기는 제단에서 머리를 비틀 것.(피는 제단 곁에 흘림)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살짝 찢을 것.

-비둘기의 모래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질 것.

-무교병은 기름을 섞어만든 떡, 무교전병은 기름을 바른 얇은 과자.

-화목제이면 숫컷이나 암컷으로 흠이 없어야 함. 회막 앞에서 잡음. 패를 제단 사방에 뿌림.

-화목제는 모든 기름, 두콩팥을 번제로 사를 것.

속죄 제사 방법

-제사장의 속죄제물(회중의 속죄제물);수송아지-그 피를 회막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 휘장앞에 일곱번 뿌림. 향단 뿔들에 바름.(회중을 위한 속죄는 번제단 뿔들에 바름) 나머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음. 기름과 콩팥은 제단에서 불사름. 나머지 전부(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는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름.(회중을 위한 속죄제물은 진영 밖으로 가져다 불사름.) *회막 안에 들어간 속죄제물은 먹지 못함.

-족장의 속죄제;숫염소. 피를 번제단 뿔들에 바름.

-평민의 속죄제;암염소.(어린암양) 피를 번제단 뿔들에 바름.

(암염소=어린암양>=산비둘기 두마리=집비둘기 새끼 두마리>=고운 가루 1/10에바+no기름, no유향 -한응큼을 불사름)

-속죄제물로서의 비둘기의 제사 방법;<1속죄제물+2번제물> 목을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림.

-제물의 분배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음.

.소제물은 아론의 모든 자손들에게 균등분배.

.화목제의 소제물은 기념예물 거제 하나씩은 제사장의 몫.

.감사의 화목제물 중 고기는 그날 다 먹고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 (다만 서원이나 자원제는 삼일날 아침에는불사를 것.)

.고기는 정결한 자만 먹을 것.

.화목제 요제의 가슴은 아론의 자손들의 것.

.화목제 거제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 집도사제의 소득.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아론과 그의 자손의 소득.

